

卍

韓國의 크리스마스 썸 野話 18

(1971-1973年度 發行分)

이창성/크리스마스 썸 동호인. 수집가

1971년

1. 특징

포도 2종과 한국민화 25종은 한쪽의 그림을 25장의 썸로서 구성한 것이며, 서양에서는 이미 이러한 썸을 발행하고 있으나 아무튼 포도 도안 2종을 포함 27종이란 최대의 종류와 전지도 각각 50매와 100매 전지를 발행한 "썸 풍년의 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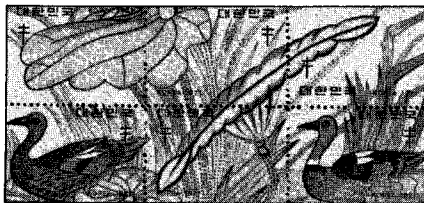
A. 포도 도안



포도 넝쿨에 매달린 포도를 그리고 있으나 동양화의 한쪽 같은 도안에 배경의 대조가 명료한 아름다운 도안이며, 도안

자는 민철홍 씨이다.

B. 한국민화 도안



연못에 만발한 연꽃과 물오리, 물새를 다양하게 묘사한 도안으로 크리스마스 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동양화의 철학이 담긴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며, 25매의 썸로 모두 다른 도안의 썸이 한국에서도 등장한 셈이다.

3. 전지 (10×5=50매. 10×10=100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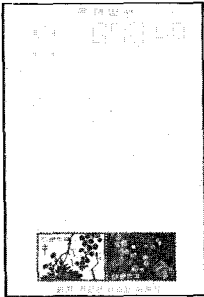
포도 도안의 전지는 50매와 100매 두 가지가 발행되었으며, 변지 상부의 왼쪽에는 도안자, 중앙에는 작년과 같은 표어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인쇄소가 명기돼 있는데 50매 전지의 글씨가 100매 전

지보다 적다.

한국민화 도안의 전지도 2종류 있으며, 변지의 내용은 포도 도안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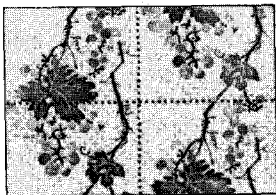
변지 상부에는 적색과 청색으로 "내가 산 크리스마스 썰 결핵을 없앤다"라는 표어가 들어 있다. 또한 하부 좌측에는 도안자와 우측에는 인쇄소인 "서울인쇄 주식회사" 흑색으로 표기돼 있다.

4. 복십자 엽서



엽서표면의 하부에 포도 도안의 2종 썰이 마치 천공까지 있는 양 인쇄되어 있으며, 썰의 아래에는 "맑고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라는 표어가 인쇄되어 있다.

5. 오작



포도 도안의 썰에 적색이 누락된 것이 있는데, 미국에 우편주문으로 수출된 썰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또한 한국민화의 100매 전지에는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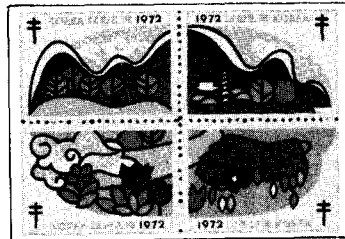
조상의 실수로 인한 무공이 존재하여 필자가 우연한 행운으로 입수하였으나 썰인 까닭에 전에 소장자의 보관 잘못으로 상태가 약간 불량인 점이 아쉽다.

6. 각종 자료 (DATA)

| 구분 | 내용 | | 비고 |
|-------|-------------|------------|----|
| 발행년도 | 1971년 | | |
| 도안내용 | 포도 | 한국민화 | |
| 종수 | 2종 | 25종 | |
| 도안인원 | 민결홍 | 변종하 | |
| 천공 | 35×25mm | 35×25mm | |
| 쇄색 | 단색점공 12½ | 단색점공 12½ | |
| 판 | 4도 | 4도 | |
| 전지구성 | 평균 | 평균 | |
| 판매가액 | 10×5=50매 | 10×5=50매 | |
| 복십자엽서 | 10×10=100매 | 10×10=100매 | |
| 인쇄소 | 10원 | 10원 | |
| 발행매수 | 있음 | - | |
| 매실적 | 서울인쇄주식회사 | 서울인쇄주식회사 | |
| | 16,830천매 | 16,830천매 | |
| | 30,091,939매 | | |

1972년

1. 도안



아름다운 풍경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4매의 썰은 천공부분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도안으로 꽃동산과 한가하게 누워있는 소, 산림, 외딴집 등이 농촌의 풍요로운 목가적인 도안이라 할 수 있다.

이 해에도 현상모집한 작품으로 도안자는 김혜성 씨이다.

그러나 썰 변지에는 김 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당시 김 현 씨가 도안하여 그의 여동생인 혜성 씨의 이름으로 출판하게 되어 당선되었던 것으로 실제 도안자는 김현 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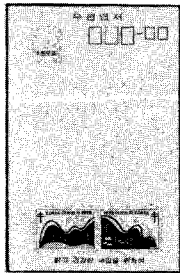
2. 전지 (10×10=100매)

100매의 전지가 있으며, 변지 상부의 표어는 작년과 같으며, 특별한 오작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3. 소형슈이트

썰 연쇄 4매 브럭을 4브럭으로 구성된 썰 16매의 소형슈이트는 매우 아담한 크기이며, 발행량은 미상이나 비교적 쉽게 입수할 수 있다.

4. 복잡자엽서



썰 4종연쇄의 상부 2종을 천공까지 있는 양 인쇄한 엽서가 발행되었다.

판매가격과 발행량 등이 미상인 것이 아쉬우며, 복잡자엽서는 미사용보다 사용제의 입수가 매우 힘들다.

5. 각종자료 (DATA)

| 구분 | 내용 | 비고 |
|------|-------|----|
| 발행년도 | 1972년 | |

| | | |
|------|-------------|----|
| 도안내용 | 아름다운 풍경 | 현상 |
| 종 수 | 4종 | 모집 |
| 도안자 | 김 현 | 작품 |
| 인 면 | 31×22mm | |
| 천 공 | 12½ 단식점공 | |
| 쇄 색 | 4도 | |
| 판 식 | 평판 | |
| 전지구성 | 10×10=100매 | |
| 판매가격 | 10원 | |
| 인쇄소 | 서울인쇄주식회사 | |
| 발행매수 | 39,820천매 | |
| 판매실적 | 36,929,633매 | |

1973년

1. 도안



신랑과 각시

이해에도 현상모집을 하여 당선된 작품이며 도안자는 윤경호 씨이다. 한국 고유의 혼례복을 입은 신랑과 각시의 두 가지 도안이 만화풍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기할만한 사항은 판매가가 좌측하부에 화폐단위의 표시없이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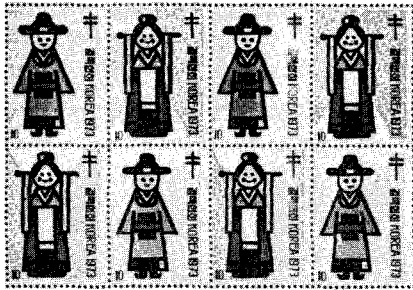
2. 전지 (10×5=50매, 10×10=100매)

50매와 100매의 두가지 전지가 발행됐으며, 변지 상부 우측에는 서울신문사라는 인쇄소가 명기돼 있는데, 서울신문사는 연하엽서를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지 매년 인쇄하여 우표수집가와도 친숙하게된 인쇄소라 할 수 있다.

번지상의 인쇄표어, 하부의 발행년도, 영문으로 대한결핵협회라는 문구들 틀에 박힌듯 변화가 없다.

3. 소형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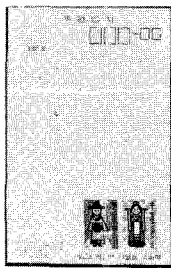
4×4=16개의 실을 인쇄하여 상부에는 전지와 같이 도안자, 인쇄소, 표어와 하부의 발행년도, 대한결핵협회 등이 축소 인쇄되어 있다.

천공은 좌우발, 상발이나 하발도 있을 듯 하나 미발견이다.

1972년의 소형쉬이트와 같은 크기로 입수 또한 용이하다.

4. 복십자엽서

실 2종을 엽서 표면의 하부 우측에 무공상태로 인쇄되어 있다. 우편번호란 밑에 "한장 20원"이라고 판매가가 명시되어 있다.



이 복십자엽서가 지금까지 발행된 엽서중 가장 입수가 힘들었으며, 각 지방

을 수소문하던 것이 5년이 경과한 어느 날 지금은 고인이된 김성필 씨가 부산에 출장왔던 길에 필자의 집에 찾아와서 이 엽서를 주었을 때의 고마움은 수집가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일 것이다.

5. 각종 자료DATA

| 구분 | 내용 | 비고 |
|-------|------------------------|----|
| 발행년도 | 1973년 | |
| 도안내용 | 신랑과 각시 | 현상 |
| 도안자 | 윤경호 | 모집 |
| 종수 | 2종 | 작품 |
| 인면 | 22×32mm | |
| 천공 | 점공복식 12½ | |
| 쇄색 | 4도 | |
| 판식 | 평판 | |
| 전지구성 | 10×5=50매 10×10=100매 | |
| 판매가액 | 10원 | |
| 복십자엽서 | 1종 | |
| 인쇄소 | 서울신문사 | |
| 발행매수 | 41,965천매 | |
| 판매실적 | 37,338,031매 | |

참고문헌

- 1). GREEN WORLD SEAL CATALOGUE, The christmas seal and Charity stamp society, Chicago, U. S. A. 1983, by Henry Irwin.
- 2). 대한결핵협회 30년사 (1983-대한결핵협회 발행).
- 3). 원색한국우표도감, (1991-우문관 발행).
- 4). 세계의 크리스마스 실 도감 (한국편), (1989-대한결핵협회 발행). 卄